

# 유용미생물 농업인 호응

### 익산시 농기센터, 올 말까지 750톤 1100농가 공급 관내 축산농가 93% “악취저감 효과 느꼈다” 응답

익산시가 축산악취 저감과 친환경농업 실현을 목적으로 공급한 유용미생물이 관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미생물 활용 농·축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축산 농가 중 93%가 미생물 사용 이후 냄새저감 효과를 느꼈다고 응답했고 시설원에 농가는 73%가 당도 및 품질이 향상되었

다고 응답하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체 배양한 3종(광합성균, 복합미생물, 고초균)의 유용미생물 420톤을 관내 농가에 무상 공급했다.

3종의 유용미생물은 축산분뇨 악취저감, 작물 생육촉진, 연작장애 경감, 병해충 억제 등에 효과가 있어 매년 공급 농가 수와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유용미생물 750톤을 1,100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안정적으로 품질 좋은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잡균 오염이 차단된 멸균 배양기를 확보하였고 지난 6월 왕궁특수지역 양돈농가의 축사 간 오염 방지를 위해 기존 재활용 용기로 공급되던 광합성균을 5리터 비닐포장 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미생물 포장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시는 올해부터 관내 우주원 가축분뇨자원화센터에 악취저감제를 연간 10톤 공급하고 9월부터는 왕궁특수지역의 악취저감제 공급량을 월 7톤에서 12톤으로 증량시켜 확대보급해 악취저감에 힘쓰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유용미생물이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줄여줘 가축의 스트레스를 막고 축사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고 원예 농가는 “미생물을 뿌리면 뿌리 활력이 잘 되고 수량이 증대되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9월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농가에서 희석배율 및 보관기간 등 사용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농가 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미생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초등학교들의 장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생생직업 체험교실' 을 개설하고 교육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 군산시, 초등생 장애 진로 탐색 돕는다

### '생생직업 체험교실'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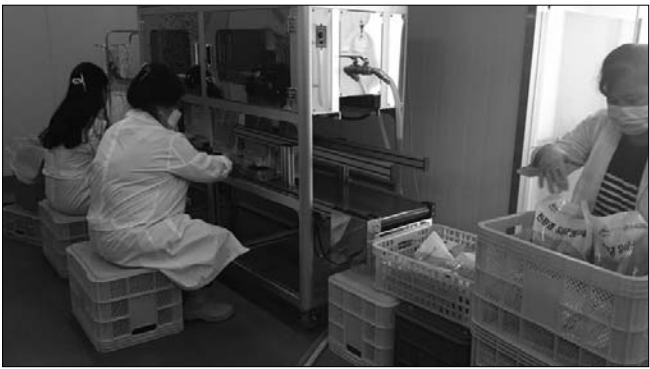
군산시는 초등학교들의 장애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생생직업 체험교실' 을 개설하고 교육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체험 교실은 지난 9월에 이어 운영되는 것으로 10월에 운영되는 체험 프로그램은 수의사&사육사(10.10~11), 캐릭터디자이너(10.17~18), 특수분장사(10.24~25), 과학기술사(10.31~11.1)이다

사전 예약은 5일 오전 9시부터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event)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나 군산시 아동청소년과(454-416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9월에 쇼콜라리에 프로그램과 해양생태연구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초등학교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11월 말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가 축산악취 저감과 친환경농업 실현을 목적으로 공급한 유용미생물이 관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익산시, 인구 28만 사수 '젠걸음'

### 지역 기관·단체 및 단방문... 인구문제 협력 요청

정현을 시장이 지역 기관과 단체를 잇따라 방문해 인구 28만 사수를 위한 각종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5일 인구문제 협력과 익산사랑운동 실천 캠페인 홍보를 위하여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인구 28만 붐과 위기로 호남 3대 도시 위상을 빼앗길 상황에 처했음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익산사랑운동 실천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

익산사랑운동 실천 캠페인은 실거주 미전입자 바른주소찾기, 익산에서 직

장 생활을 하는 타시군 거주자 익산에 내 보금자리 갖기 운동 은퇴 후 고향에 돌아와 익산에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기 등 지역 인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차신태 학장은 “대학교도 학령인구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감소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과 시민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며 익산사랑 운동 실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아파트 우선 공급

익산시가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5일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공급 대상을 고

시했으며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청약 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최근 들어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사업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모현동 이지움(207세대), 팔봉동 데테라스아파트라체(192세대), 동산동 광신프로그레스(345세대), 내년

상반기에 마동 현대힐스테이트(454세대)와 마동공원 GS자이(1,446세대), 수도산공원 제일풍경채(1,515세대)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후 5년간 약 1만 5,000~2만 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요 인구감소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주택 문제를 실거주자 우선 공급을 통해 해소해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28만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23~24일... 온라인·드라이브인 방식 도입

익산시는 올해 북페스티벌을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드라이브인' 방식을 도입해 개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이를 동안 대면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책향기로 탐을 쫓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10월 23일 개막을 시작으로 작가 강연 및 공연, 방구석 체험, 드라이브인 독서골든벨과 북콘서트 등 다양한 온라인 생중계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슬아, 김겨울, 김동식, 김민섭과 지역의 정도상 작가를 섭외하여 온라인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방구석 체험', 'BOOK면가왕' 등 집에 머무르며 가족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특히 '2020 익산 북페스티벌'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차 안에서 즐기는 '드라이브인' 프로그램을 첫 도입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2020 익산시 환경의 책'으로 선정된 '어디서 살 것인가'의 유현준 작가의 강연은 30팀의 사전 접수를 받아 차

안에서 강연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인 북콘서트로 진행된다. 또한 매해 모현도서관 체육관에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었던 독서골든벨은 '드라이브인 독서골든벨'로 형식을 변경하여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이 독서 지식을 겨루게 된다.

이 밖에도 '제로온 독서동아리 이야기', '우리 동네 책방 이야기' 등 온라인을 통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대담, 토크 프로그램, 도서관 자원봉사를 통해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점주MBC 여성시대' 방송도 준비 중이다.

정현을 시장은 "2020 익산 북페스티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온라인 비대면 형식의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참여자들의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iksan.go.kr)를 참고하거나 모현도서관 ☎ 063-859-37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소·염소 구제역백신 군산시 일제접종 실시

군산시는 6일부터 소·염소의 2020년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은 '구제역·시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염소 일제접종을 정례회해 추진하고 있다.

백신 접종 소홀, 개체별 접종 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도가 도입됐으며, 최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해 예방효과 제고 및 구제역 유입 원천 차단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 323호 1만2,886두를 대상으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접종반을 구성해 백신과 접종수술을 제공하고 있다. 소 접종농가(50두 이상)는 자가접종 실시 대상이나, 고령, 질병, 거뿔 불능 등의 사유로 시술이 불가능한 농가는 시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해 접종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제접종에서 제외된 개체는 오는 12월 중 보강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 보령 호니눔 복지센터 지역 어르신 명절나눔

군산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보령호니눔복지센터(관장 엄기욱, 군산대학교 교수)는 한국중부발전 신재생사업처로부터 300만원을, 수자원공사로부터 210만원을 후원받아 지역 어르신에게 명절나눔을 진행했다.

센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김을 구입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추석 명절을 홀로 지내는 5개 읍면(웅천읍, 남포면, 미산면, 성주면, 주산면) 거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취약계층노인 340명을 선발해 명절나눔을 진행했다. 또한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은 지역 내 소외계층 어르신 75명에게 쌀과 멸치 등을 나누는 데 활용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